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Field Report

2010 한국전자전(KES) 스마트한 세상을 제시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한국전자산업대전은 '한국전자전(KES)', '반도체 산업대전(i-SEDEX)',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자·IT 종합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의 참가업체는 12개국 800개사 2,107부스로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테마관으로 감성 LED 전조등, 줄기세포 치료제, 스마트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선보인 신성장동력관, T-DMB/DBA 수현 보드를 통한 칩 동작 체험과 3D 전신 스캐너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융합체험관, 냉장고, 청소기, 믹서기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생활가전관 등 여러 전시관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 선보였다. 방송기술과 융합된 전시들은 한국전자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설치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입구부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TV와 3D 관련 제품들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스마트TV 체험존, 3DTV, 3D노트북이 전시된 부스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KES 2010

IT's my life

한국전자전 속 방송기술

한국전자전은 IT 전시회로 방송기술과 관련한 전시구성은 약하지만, 그래도 방송과 관련 있는 주요 분야를 살펴보았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와 3DTV의 개발동향', 3D 관련 다양한 부분을 선보인 '3D 엑스포관', 방송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디지털 방송장비 홍보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스마트TV

애플과 구글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스마트TV를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스에서 스마트TV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체험존을 마련해 영화, VOD, 페이스북 같은 TV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리모컨에 76.2mm(3인치)짜리 터치스크린 LCD를 단 것이 시선을 끌었다. TV에서 나오는 화면을 같이 볼 수 있으며, 화면을 보지 않을 때는 번호나 아이콘을 눌러 TV를 조작할 수 있다.

LG전자의 스마트TV는 소비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넷캐스트 2.0(자체 스마트TV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TV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리모컨은 동작 인식 센서를 달아 방향키로 조작하지 않고 움직이는 동작으로 조작할 수 있다.



3D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65인치 풀HD 3D LED TV를 선보이면서 3DTV의 대형화를 주도했으며, 부스 중앙에 자리 잡은 55인치 풀HD 3D LED TV 16대로 구성된 3DTV 체험존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 외에도 3D 홈시어터와 능동형 방식의 싱글엔진 싱글렌즈 3D 프로젝터 등 3D 관련 제품들이 선보였다.

LG전자는 31인치 3D OLED TV와 세계 최초 THX 3D 화질인증 TV를 선보였다. 31인치 3D O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OLED의 장점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TV 두께가 단 2.9mm에 불과하다. LCD보다 1,000배가량 빠른 응답 속도와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갖췄으며, 완벽한 검은색을 표현해, 일반 2D 영상은 물론 3D 입체 영상에서도 어지러운 현상이 없는 화질을 구현한다.

‘THX(Tomlinson Holman EXperiment)’ 인증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루카스 필름’이 최고의 화질과 음질을 갖춘 극장시설의 평가 및 인증을 위해 만든 것으로 LG전자는 작년에 2DTV에서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야각과 크로스톡(Cross-Talk), 비디오 프로세싱 성과 등 400여 가지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3D 엑스포관에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컨트롤 리그에서부터 모션 시뮬레이션 처리장치까지 다양한 3D 콘텐츠 제작 솔루션들이 선보였다. 또한, 기존에 안경을 착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무안경 방식(레드로버, 3Done)으로 시청이 가능한 제품들도 출시되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한국 디지털 방송장비 홍보관

한국 디지털 방송장비 홍보관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한 장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장비를 선보였다. 특히, 국산 방송장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수요확산을 고취시키고자 정부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연계형 R&D지원 과제(12개사*)’ 참여업체의 성과물을 전시했다.

- 케이투이 : 방송용 AV/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 CIS테크 : 방송 자동송출 시스템
- 진명통신 : 디지털TV 중계기 및 송수신 안테나 *
- 티비이로직 : HD 방송제작용 LCD 모니터 *
- 에이스텔 : 멀티채널 Mpeg 포맷변환 전송장비 *
- 인터엠 : 방송용 디지털 오디오 믹서 *
- 다림비전 : HD 가상광고 시스템 *
- 답스 : DTV 익시터 *
- 디투넷 : 메모리 기반 HD급 송출용 비디오 서버 *
- 아스텔 : DMB File-casting 방송 시스템 *
- 오로라이티브링크 : 방송용 LED 조명기구 *
- 제노 : 휴대용 HD 통합 디지털 방송 시스템 *
- 호서텔레콤 : MPEG-2 HD급 인코더 결합형 변조기 *
- CS 코퍼레이션 : 옥외형 DTV 중계기 *



컨퍼런스

2010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Smart Korea 2010'에서는 Creative Futures Forum(IT Korea의 미래를 전망하고 전략을 논의), IT Convergence Conference(IT융합 발전전략 및 융합추진 성공 사례), Global Cooperation Seminar(인도,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의 현황과 진출 전략)를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디지털 방송과 3D 관련해서는 '스마트 미디어(스마트 TV&폰) 산업의 미래와 전망'(스마트TV의 활성화 방안), '3DTV 카메라의 현재와 미래'(3D 카메라의 기술과 활용), '3D 융합산업 글로벌 컨퍼런스'(일본과 미국의 최근 3D 산업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진행되어 디지털 전환과 3D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저탄소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IT 산업 녹색성장 세미나'와 '2010 의료·IT 융합기술 로드쇼', 'IMID/IDMC/Asia Display 2010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사)미래방송연구회가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스마트TV&폰) 산업의 미래와 전망'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IT와 미디어 산업의 핵심 이슈인 스마트TV,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주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됐다.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TV 시장의 경쟁을 분석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전략을 들어보고, 스마트TV 등장에 따른 업계의 동향과 콘텐츠 유통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컨퍼런스는 스마트TV의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현황만 있었을 뿐, 큰 실속은 없어 보였다. 대부분의 발제가 구글과 애플의 현황이 반복되면서 집중력을 흐렸고, 업체들은 '보안'이라는 말로 도움 될 만한 정보는 차단됐다. 업계의 동향이나 콘텐츠 유통 전략에 있어서도 IPTV나 DMB, 3DTV 등 새로운 매체가 시장진입 시 겪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자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한 한국을 위해 분위기는 조성하고 있으나 무언가 보여 지는 결과물은 없는 것 같다. 이런 현상으로 봐서는 스마트TV도 기존 미디어보다 일부 기능이 추가된 또 하나의 콘텐츠 전달 장치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